



‘착한 목자’
바르톨로메 에스테반 무리요 작



나누는 공동체, 더불어 사는 공동체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천주교회

ST. FRANCIS OF ASSISI CHURCH KOREAN COMMUNITY

Address: 135 West 31st Street, New York, NY10001
Phone : 212-736-8500 (EXT 355, 384)
347-834-5784

Website : <https://stfrancisnyc.org/>
Email: stfranciskc.org@gmail.com

주임신부 : Joseph Juracek, O.F.M

지도신부 : 김진열 가롤로 (작은형제회 :프란치스코회) carolokimofm@gmail.com

지도수녀 : 김효주 (투스 평 포교베네딕도회 서울수녀원) seoulosb@gmail.com

사목회장 : 백이백 아오스딩 646. 599. 5795

제1독서 | 사도행전 4,8-12

화답송



(후렴) 집 짓는 이들이 내 버린 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네.
○ 주님은 좋으신 분, 찬송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사람을 믿기보다, 주님께 피신함이 훨씬 낫다네. 제후들을 믿기보다, 주님께 피신함이 훨씬 낫다네. ◎ ○ 당신이 제게 응답하시고 구원이 되어 주셨으니, 제가 당신을 찬송하나이다. 집 짓는 이들이 내 버린 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네. 주님이 이루신 일, 우리 눈에는 놀랍기만 하네. ◎

신앙고백 :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

✠ 한 분이신 하느님을 ◎ 저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과 땅과 유형 무형한 만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또한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의 외아들, 영원으로부터 성부에게서 나신 분을 믿나이다. 하느님에게서 나신 하느님, 빛에서 나신 빛, 참 하느님에게서 나신 참 하느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성부와 한 본체로서,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믿나이다. 성자께서는 저희 인간을 위하여, 저희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셨음을 믿나이다. 또한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취하시어 사람이 되셨음을 믿나이다. <밀줄 부분에서 모두 머리를 깊이숙임>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수난하고 묻히셨으며 성서 말씀대로 사흘날에 부활하시어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아계심을 믿나이다. 그분께서는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영광 속에 다시 오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으리이다. 또한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이다.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에게서 발하시고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영광과 흠숭을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를 믿나이다. 죄를 씻는 유일한 세례를 믿으며 죽은 이들의 부활과 내세의 삶을 기다리나이다. 아멘.

제2독서 | 요한 1서 3,1-2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착한 목자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복음 | 루카 10,11-18

성가 | 입당성가 [55] 예물준비 [512]
영성체 [177] 파견성가 [136]

미사봉헌

연미사	봉헌
이종근 요셉	익명
임순남 엘리사벳	이사라
임순남 엘리사벳	민바울라
김영복 아녜스	손명희 엘리사벳
임달수 베드로	이영혜 안젤라
이필영 마리안나	이영근 마이클
생미사	봉헌
허강현 크리스토퍼	서준후 가족
김수현 크리스티나, 임성민 결혼축복(4/27)	김이 엘리자베스
대녀 조혜나마리안나 영명축일	대모 김미경 소화테레사
김선희 스킴라스티카 영육건강, 김대원 치유	김영희 클라라
김성희 영육건강, 김희준 영육건강	김영희 클라라
김영희 클라라 건진축하	이경자 율리안나
윤요한 건강	이종훈 바오로
박 알버트 내외	이종훈 바오로
7월 성령대회	이종훈 바오로
김소예 엘리사벳 첫영성체 축하	김계현 소화테레사

날짜	해설	1독서	2독서	보편지향	성찬봉사	복사
4월 21일	김진수	강호영	민재인	민재인	김종선	이유스티나 최사도요한
4월 28일	김유화	송명근	민덕미	민덕미	김영숙	조바실리오 김실비아

미사, 성사, 교리 안내	
주일 미사	오전 09:15 윗 성당
청년 미사	매월 2번째 토 18:00 아래 성당
고해 성사	08:30-08:50 아래 성당 고해소
혼인 성사	신부님께 직접 문의
유아 세례	매월 2번째 주일 미사중 *신청:사무실
봉 성 체	매월 1번째 목요일 *신청:사무실
예비신자 교리 견진 교리	일반인을 위한 교리 *신청:사무실 환자, 어르신을 위한 방문교리 *신청:사무실

전신자 묵주기도 10만 송이 봉헌하기
기간: 10/01/2023~ 09/30/2024 *현재: 71,496단

▶**오늘 미사주례: Fr.김 알폰소(메리놀 미국 관구 책임)**
일본, 인도, 대만등에서 많은 선교 체험을 하신 알폰소 신부님의 "선교 나눔"이 있습니다. 뉴욕대교구의 허락으로 맨하탄 성당을 방문하신 신부님의 사목에, 교우분들의 많은 기도와 후원 부탁드립니다. *오늘 2차헌금: 메리놀 선교후원

▶**오늘 미사 후 친교모임 없습니다(다미안홀 사용불가)**

▶**사업체 후보 광고 1년 신청 안내**
주보에 홍보가 필요한 사업체의 신청받습니다.
신청장소: 미사후 재무데스크, 신청 마감 5/19(주일)
신청비: \$300 (처음 신청하시는 분은 명함과 함께)

▶**성모의밤 꽃 봉헌 받습니다**
일시: 5/4(토) 오후 7시, 대성당
성모성월인 5월, 한 생을 신앙의 모범이 되어주신 성모님께 기도드리며, 꽃 봉헌 원하시는 개인이나 단체의 신청받습니다.
미사후 재무데스크 꽃봉헌 마감: 4/21(주일) *단체 꽃 봉헌금액: \$40
*개인 꽃봉헌(합계:\$170)
박신희, 배옥희, 린다김데레사, 진봉숙MCAT심리치료클리닉, 박병심

▶**미동북부 ME 80차 부부주말**
World Wide Marriage Encounter(WWME)는 혼인한 부부가 대화를 통해 부부 관계를 성장시키며 사랑의 일치를 이루어 더욱 깊은 혼인 생활을 누리게 하려는 운동입니다.
5/24(토)~27(월). 뉴욕 롱아일랜드 헌팅턴 신학교 참가비:\$100(부부)
문의: 장철순 스테파노, 장혜운 크리스티나 646-322-3484

▶**성프란치스코의 집 재속회 바자회에 교우들을 초대합니다.**
일시: 5/5(주일) 9am~3pm, 성프란치스코의 집
주소: 147-07 Bayside Ave Flushing, NY11354

▶**제 24회 나눔의 바자회**

날짜: 5월 19일(주일), 장소: Broadway Btn31/32st
문의: 추진위원장 강호영 안드레아 516-521-3113
후원금접수: 사무실 또는 재무데스크. 바자회를 위한 물품을 후원해주실 분들은 미리 사무실로 연락주세요. 바자회 판매용 헌 옷은 세탁하여 가져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 모금액 현재: \$6,685

강호영, 이영애, 큰집, 원조, 성모회 양말판매(\$785), 진홍섭, 박기목, 민완준, 조남록, 강혜숙, 강명옥, 윤동진

▶**하늘처럼 성가대 반주자 모집**

성가대 단원들과 마음 합하여 하느님께 찬미와 영광을 드리실 피아노 전공하신 반주자를 모집합니다. 반주가 가능한 본인 또는 주변에 추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문의: 지휘자 이주윤 카타리나 646-696-4680

▶**청년 레지오 단원 모집**

대상: 20대, 30대, 40대 남녀. **기도, 봉사, 따뜻함**이 있는 곳!
"기도 및 활동 나눔, 봉사, 본당 협조 등의 크고 작은 선교로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희망의 모후Pr. 매주목 6pm
문의: 단장 정다경 마리아 347-514-5783
*우리즐거움의 원천Pr. 매주일11am
문의: 단장 이기원 스테파노 929-208-5147

▶**미주 가톨릭 평화신문주최 북미주 신앙특강**

주제: 마리아의 노래와 우리의 노래
일시: 5/3(금)~5(주일) 장소:뉴욕 헌팅턴 신학교 피정센터
강사: Fr.이병근 피정비: \$420(1인1실)
신청: 수산나 571-423-875



▶**성경을 읽기전 드리는 기도**

하느님 아버지,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성경을 읽은후 드리는 기도**

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한인공동체 온라인 서비스 안내

1. 미국 본당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합니다. 구글에서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성당”을 검색하세요.

stfrancisnyc.org > korean-ministry > Translate this page
Korean Ministry - Saint Francis of Assisi
클릭하면 한인공동체로 바로 연결됩니다.



공지사항 기부 후보

넌 뭐가 부러워?



죽은 개지렁이도 더듬 벌벌 떨리며 두려워하던 어린시절의 내가 부러웁니다

by 황중환

투병 중이신 분들 위해 기도합니다.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 Mt 25,4

김옥지아가다 이경희미카엘라 김동희헬레나 정창동폴리나 지군자스테파니 진정은마리아 이경봉요셉그레고리오 이남석베드로 박재호베네딕트

CARGOZONE
LOGISTICS INC

양서윤 플로라 (FLORA YANG)
무역 수입 IMPORT & 수출 EXPORT
657-337-5130
marketing@cziusa.com

Nest Seekers
INTERNATIONAL
부동산

크리샤 박 (917) 370-0394
krishap@nestseekers.com

뉴욕 맨하탄 NYC INTEGRATIVE ACUPUNCTURE
마음힐리언스 한방병원

212-203-0072
Kakaotalk ID : nycacu

CHA
PHYSICAL THERAPY
차 물리치료 | 침치료

16 W 32nd St. #1007,
New York, NY 10001
212-643-9326

이민/부동산 (아오스딩)
백이백 변호사

201-224-3400
718-445-0345
Paicklaw@gmail.com

백승민
이민법 변호사
IMMIGRATION ATTORNEY

TEL. (551) 335-8868
EMAIL. EMIN@BAIKLAW.COM

120 W 58th St. Manhattan, NY 10019
120 WEST 58 WINE & LIQUOR

린다킴 데레사
212-265-0333 (FREE DELIVERY)
MON-SAT:10AM-10PM / SUN:12PM-9PM

더큰집

TEL. 212-564-8238

WONJO New Wonjo
212-695-5815

그리운 **miss KOREA** barbeque

10 W 32nd St. 1,2,3 FL, New York, NY
212-594-4963 전 스테파노

HB HANBIT TOUR, INC.
한빛여행사

Mary Lee
1270 Broadway #303 Tel: 347-840-2112
(32 St.-33 St.) Fax: 212-631-8070
New York, NY 10001 hanbittour@gmail.com

마리아 투어
Maria Tour USA
성지순례

박 아그네스
TEL. 212-594-7773, 646-808-7322

Hair City Elegance

교우분 환영합니다.
45-38 Bell Blvd. Bayside, NY 11361
데레사 718-423-4940

광고주를 찾습니다.

주일의 말씀

하느님은 사람을 필요로 하십니다

| 박광훈 안드레아 신부

오늘은 성소 주일입니다. 하느님과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을 위해서 특별히 자신의 삶을 바치는 이들을 위한 날입니다.

하느님께서서는 끊임없이 일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 안에서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은 참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또 여러 사람을 통하여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을 위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위해 하느님께서서는 참 많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느님은 당신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사람들을 필요로 하십니다. 사람들을 위한 당신의 일에 하느님은 언제나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의 특징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 하느님께는 필요합니다. 자신의 모든 삶을 하느님을 위해서 내어놓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모든 삶을 하느님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하느님은 필요하십니다. 하느님께서 원하시고자 하는 일을 할 사람이 하느님은 필요하십니다. 하느님을 위해 어떤 일이든지 하기를 정말로 원하는 사람을 하느님께서서는 필요로 하십니다.

당신께 바쳐진 사람을 통해서 하느님은 참으로 많은 일을 하십니다. 당신의 일꾼을 통해서 하느님은 기묘한 방법으로 당신의 일을 만들어 가십니다. 인간적인 한계나 결함도 하느님은 때때로 아주 놀라운 방법으로 활용하시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하느님을 위한' 사람이 지금 필요합니다. 거의 모든 사람이 '세상의 일'을 하는 이 세상 안에서, '하느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이 세상은 필요합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 가운데에서, '하느님께 속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하느님만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성소 주일을 지내면서 우리 모두 각자 자신의 성소를 어떻게 살아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성소는 단 한 번의 부르심이나 단 한 번의 응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삶 속에서 끊임없이 하느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합당한 응답을 지속해서 해 나가는 긴 여정입니다. 특별히 하느님께 당신을 위한 사람, 당신의 일을 하는 사람, 당신만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을 보내주시도록 기도드려야 하겠습니다. **필요**